

주말 아롱아롱 세미나 2주차 <관계> 발제문

by 어젯밤 꿈속에서 여학생 교육권 얘기하러 본관 갔다가 얼떨결에 등록금 동결시키고 온 김나눔

* 이 발제문은 '글'이 아니라, 발제자의 혼잣말을 속기 한 것입니다. 하하

수도 없이 많은 관계속에 살면서도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이 정해놓은 관계의 틀 안에서 살지만, 다양한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담아내기엔, 그 관계의 틀이란건 너무 협소하고, 사실 그 관계 틀이라는 것은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니, 담아내지 않음으로써 유지된다. 너무나도 공고한 가부장적 관계 틀, 자본주의적 관계 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배제되며, 상처받고 있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주변 사물들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동네 고양이와의 관계 맺기에서도, 뒷산 나무와의 관계 맺기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억압한다. '나'는 관계를 통해서 구성된다. 나는 나의 주변과 관계 맺음으로써, 또 그 관계를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끝내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구성된다. 어떻게 나의 관계 맺기가 타자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 나의 관계 맺기가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보자.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가 새롭게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자. 역시 오늘도 세상이 정해놓은 관계라는 것에 틈을 내고 그곳을 누벼보자.

우리는 부모님, 친구, 교수, 애인, 조모임에서 만난 사람, 학교 교직원, 술집 주인, 담배가게 주인, 선배, 후배, 동네 고양이, 동네 개,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수천 종류의 벌레, 코카콜라, ... 미치도록 수많은 것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이것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건, 여성주의적으로 관계 맺기의 출발이자, 끝인 것 같다. 커리에는 연애와 공동체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관계들이 들어있다. 사실 연애와 공동체라고 딱 끊어서 말하기엔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다. 어쨌든, 너무나도 일상적인,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맨날 맨날 입에 오르내리는 연애와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시작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자.

연애 파트 첫 번째 커리, 이렇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에서는 영화 '오아시스'를 본 어떤 사람이 쓴 글이다. 치열한 분노로 쓰여졌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글이 '연애'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글 끝에 나오는 것 처럼 강간을 사랑으로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연애 각본' 때문이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연애는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또는 네 사람이(요즘은 네 사람이 만드는 연애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뜬다쥬.), 흠, 몇 명이든 상관없이 만들어가는 사적이고 주체적인 관계 맺기 인것 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연애 각본에 충실함으로써 어떤 관계가 '연애'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어지는 글에서도 '사랑'이라는 말로 용서되지 않는 것들 이라는 적나라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들, 사랑이라고 말함으로써 누군가의 관계를 너무 쉽게 규정해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사랑임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

100103 64637722
56220

지,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 되어 버리는 통속적인 연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연애가 관계 맺기라면 프로그램 같듯이 깔아서 될 것이 아닐텐데.

사실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 연애 각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특히 마초 남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사랑과 섹스라는 파트에서 정희진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의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이성 연애를 권장하고, 아니 강요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이 사회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집어 넣음으로써 연애 각본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구리디 구린 각본안에서 '다른 연애'를 할 수 있을 때 전복이 가능하다면, '다른 연애'를 상상해보자.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제각기 다른 사람들과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각기 다른 주변과 연애를 한다면, 다 '다른 연애' 인게 맞지 않나?

여러모로 할 얘기 많을 것 같다.

연애 이야기로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맺기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 해야 할 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공동체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둘러보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나의 공동체를 상상해보는 것인 것 같다. 커리에 나오는 공동체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에 들어가야만 하는 편입되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을 구구절절이 까고, 누군가와와의 관계 맺기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공동체와 연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떠들어 봤으면 좋겠다. 새터 오티 또 각자의 공동체에서 느낀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성주의적인 공동체가 다름아닌, 내가 편안 할 수 있고, 나의 편안함이 내 주변에게 불편함이 아닐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찾아야 한다가 보다는 슬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가는 이 순간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나, 이미 내가 살 공동체가 아닌걸 알겠는데.

이래나 저래나 관계 맺기라는 건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게다. '누구와, 어떤 것과 관계 맺을 것인가' 에 질문하다보면, 끝이 없는게 사실이다. 나는 누구와 관계 맺을 것인가, 내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원하는 관계 맺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관계 맺기를 실천하고 있는가. 따위의 질문들에서 그나마 틈이 보인다.